

미래농업 이차지원사업 ‘확대’

익산시, 농·림·축산업 분야 이차보전금 지원 본격화

익산시는 농민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림·축산업 분야의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쌀값 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서 1~2%대의 저금리로 농가당 최대 3억원까지 최대 8년간 지원한다.

시는 농업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업 분야의 다양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연 2회 걸쳐 실시하며 상반기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접수받는다.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지역 농·축·원협 상호금융 중 기대출금 등을 재원으로 농가당 3억 원까지 2.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6.5%의 융자 대출이율 중 4%를 익산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이다.

농가 현실을 고려해 영세농 및 청년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대폭 낮춰 1.62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경종, 원예, 가공, 가축, 특용작물, 화훼 등 농·림·축산업 전 분야의 시설·장비 및 농기계 구입 등 다양한 농업 분야이며 주택, 농지,

자동차 구입 등 자산 증식용 투자와 비료, 농약, 유류 구입 등 소모성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청 분야의 농업인·농업법인과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있는 시민(청년농업인, 귀농·귀촌 등)으로 최대 8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청년농업인은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임업인이 주로 이용하는 산림조합은 미래농업융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익산산림조합에서도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임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김인전공원(금강하구독일원)에서 군산과 서천의 상생발전 및 어르신 건강을 위한 소망기원 민속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 맞이 소망기원’

군산시 · 서천군, 상생발전 · 어르신 건강 위한 민속대회 성료

군산시는 (사)대한노인회군산시지회(지회장 이태범)와 서천군지회(지회장 김윤태)가 지난 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서천군 김인전공원(금강하구독일원)에서 군산과 서천의 상생발전 및 어르신 건강을 위한 소망기원 민속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서천군 양 노인회가 주관해 지리적 기반으로 원활한 노인복지 업무 교류는 물론 지역 어르신으로서 양 지자체 간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과 상생발전의 기반을 더욱 굳게 다지고자 추진됐다.

민속대회 진행은 군산시와 서천군의 풍물패가 행사개막을 알리고 군산시 노인회와 서천군노인회 간 협약식, 전통무대공연 및 양 시·군 상생발전과 어르신 건강기원을 소망하는 연날리기 행사 등으로 전개됐다.

처음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양 시·군 노인회의 경로당 회장 900여명과 군산시장·서천군수, 의회 의장과 내빈 등 1,000여명이 참석해 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안 먹는 약 보건의소 · 동네약국 배출 홍보

의약품은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 교란까지 일으키는데 어떻게 버려야 하는 걸까?

6일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안 먹는 폐의약품은 일반쓰레기가 아닌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 ‘유해폐기물’이다.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방법은 △알약은 약 봉투를 분리한 것, △캡슐은 까서 버리고 안에 든 가루만 모을 것, △가루약은 약포지 그대로 버릴 것, △물약, 시럽은 한 병에 모아 새지 않

도록 밀봉해 배출할 것, △안약 바르는 물약 등 특수용기에 담긴 약은 2차 포장재만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분류한 폐의약품은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전달하면 된다.

시는 약 130여 곳의 약국에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 폐의약품을 수집하고 있으며 거점약국 15곳과 보건소, 약사회 참고를 포함한 17곳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다.

처리량(kg)은 지난 2020년 3,250, 2021년 3,890, 지난해 3,590이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초등사각지대 예방...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돌봄실천 결의 다져... 영유아 중심에서 초등까지 확대

익산시가 초등돌봄 강화 등 돌봄지역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민관 돌봄체계 강화에 앞장선다.

익산지역아동센터 연합회는 지난 3일 월례회의를 갖고 서비스 향상 및 돌봄사각지대 예방 방안 등을 논의하며 ‘돌봄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참석한 지역아동센터들은 영유아 중심의 돌봄체계 영역을 확장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욱 촘촘한 돌봄복지 거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민간 보호자 부재로 돌봄공백 우려가 있는 방과후 초등학생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가 가정방문) 또는 지역 내 총 62개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47, 다함께돌봄센터 7, 우리마을돌봄공동체 6, 공동육아나눔



터 2)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부서간 흩어져있던 돌봄 업무를 통합 해 도내 최초로 ‘돌봄계’를 신설하고 통합·관리 운영을 시작했다.

돌봄 조직 신설은 핵가족화 심화, 맞

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돌봄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영유아에 비해 방과후 초등학생의 돌봄지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식, 돌봄 사각지대 예방 및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시정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재매도시 미국 컬버시와 교류 활발

익산시가 자매도시인 미국 컬버시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6일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청소년 미국 컬버시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3년여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격년마다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각 지역 청소년들이 익산시와 컬버시를 상호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익산지역 청소년들이 오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흘 간 미국 컬

버시에 머물며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체험하고 컬버시에서 준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내년 여름에는 컬버시 학생들이 익산시를 방문해 지역 학생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체험하고 시에서 준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모집 대상은 익산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남·여학생 각각 4명씩 8명을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오는 24일까



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홈스테이 참여자는 남녀 성비를 고려해 학교장 추천자 중 고학년, 동급생 경쟁일 경우 전년도 평균 성적이 높은 학생이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24시간 모니터링
축산악취 집중관리 성과

익산시는 시민과 함께 24시간 악취 모니터링 데이터로 스마트업 기반 첨단 대기환경 거버넌스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익산 악취 24 데이터 앱’을 통해 접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들이 지난해 ‘익산 악취 24 앱’으로 신고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권역별, 냄새유형별, 시간별로 악취발생 특성 분석 결과, 악취민원 발생 건수가 직전년도 수준의 63%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발생은 가축분뇨 냄새가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화학약품 냄새와 매캐한 냄새가 각각 10%로 그 뒤를 따랐다. 시간별 분석으로는 7월에서 9월 중 남풍과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할 때 냄새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천년나무 전망대
야간경관 조성사업 추진

군산시는 6일 고군산군도의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지도 천년나무 전망대에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천년나무 아래에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간 남편의 금의환향을 기도하던 여인의 전설을 담은 조형물이 위치한 포토존이면서 전망대다.

또한 대장도와 선유도 및 기타 군도로 연결된 호안이 시원스럽게 조망되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고군산군도 체류객의 주·야간 안전한 야간보행 및 불거리 형성을 위한 조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관광진흥과와 협의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전망대와 진출입 데크 공간에 난간등 및 간접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천년나무 전망대가 고군산군도의 야간경관 명소화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큰 바람이 불어와 그 불씨가 고군산군도 전체에 번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